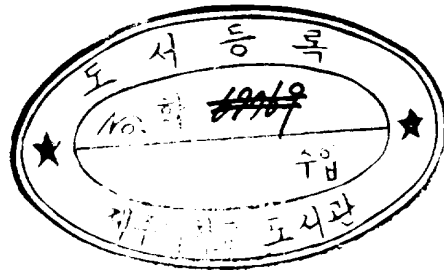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島地域語의 口蓋音化 研究

指導教授 金 光 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吳 昇 勳

1993年 8月

濟州島地域語의 口蓋音化 研究

指導教授 金 光 雄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吳 昇 勳

吳昇勳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抄 錄〉

濟州島地域語의 口蓋音化 研究

吳 昇 勳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光 雄

이 연구는 濟州島地域語의 口蓋音化 規則을 /t/-系, /k/-系, /h/-系 口蓋音化 등에 한정해서 논의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t/-系 口蓋音化 規則은 形態素 境界에서 적용되며, 單語境界에서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을 저해하는 방식이 濟州島地域語에서는 /n/-添加規則과 /t/-添加規則의 적용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둘째, /k/-系, /h/-系 口蓋音化 規則은 固有語와 漢字語의 구분없이 語頭의 위치에서 적용되고 있었는데, 漢字語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수의적이었다.

셋째,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 후에 /j/가 일괄적으로 削除되고 있어서 /j/-削除規則을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母音이 滑音의 資質에 同化되는 ‘/a, o/ → /e/’, ‘/a/ → /i/’ 規則을 설정하였는데, 이 규칙들이 /j/-削除規則보다 순서적으로 먼저 적용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濟州島地域語의 /k/-系, /h/-系 口蓋音化 規則은 同音異義語(homonym)의 생성과 관련된 意味對立의 유지, 교육, 방송 매체, 교통수단의 발달 등의 요인에 의한 연령층간의 규칙보유 실태의 차이, 音韻論的 不透明性的 제거라는 면에서 音韻規則의 목록에서 사라지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目 次

〈抄 錄〉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對象과 方法	1
3. 研究史	3
II. 分節音의 辨別的 資質	6
1. 基底子音의 辨別的 資質	6
2. 基底母音의 辨別的 資質	7
3. 滑音의 辨別的 資質	8
III. 濟州島地域語의 口蓋音化	9
1. 濟州島地域語의 口蓋音化 記述의 一般論	9
2. /t/-系 口蓋音化	9
3. /k/-系 口蓋音化	21
4. /h/-系 口蓋音化	31
IV. 口蓋音化와 관련된 音韻規則	37
V. 規則變化의 方向에 대한 展望	45
VI. 結 論	51
參考文獻	53
Summary	56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한 地域語의 音韻論의 研究는 그 地域語의 音韻體系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하여, 개별적인 音韻規則들을 설정하고, 설정된 音韻規則들의 적용 순서를 결정하여 音韻規則의 體系를 수립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러 地域語를 포괄하는 國語 音韻論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個別 地域語의 音韻 研究가 균형있게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하다는 관점¹⁾에서 보면, 한 地域語의 研究는 地域語간의 音韻規則의 공통점과 상위점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國語 音韻論 研究의 기본적인 작업이 되는 셈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濟州島地域語의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 환경과 規則의 적용에 부여되는 제약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중심으로 口蓋音化 規則과 밀접히 관련된 滑音과 母音에 관한 音韻規則에 대해 記述하고, 통시적 변화의 당위성 아래서 예측되는 口蓋音化 規則의 변화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2. 研究對象과 方法

口蓋音化 規則이 조음경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音韻同化 현상의 하나임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으나, 그 논의의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1) 崔明玉,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2), p. 2.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대상의 제한, 口蓋音化가 地域에 따라 적용 대상 음운이 다르게 나타나는 音韻現象이라는 점에
서 연구자의 출신지가 연구의 범위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
다. 지금까지 국어의 口蓋音化 規則으로써 연구되어 온 대상은 /n/ → [ɲ], /l/ → [ʎ], /s/ → [ɕ], /t, tʰ, t' / → /tʃ, tʃʰ, tʃ' /, /k, kʰ, k' / → /tʃ, tʃʰ, tʃ' /, /h/ → /s/ 등 여섯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t, tʰ, t' / → /tʃ, tʃʰ, tʃ' /,²⁾ /k, kʰ, k' / → /tʃ, tʃʰ, tʃ' /, /h/ → /s/ 등 세가지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口蓋音이 아닌 音韻이 口蓋環境에서 口蓋音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모두 口蓋音化의 연구 범위에 끌어들이는 데에 인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n/ → [ɲ], /l/ → [ʎ], /s/ → [ɕ] 등 세가지 유형은 口蓋環境에서의 일종의 변이음적 성격을 띠고 있고, 개인적인 차이를 가질 수도 있으며, 음성학적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연구의 대상에서 잠정적으로 제외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生成音韻論(generative phonology)의 線的인 規則順을 따라서 모든 音韻規則들은 일련의 順序에 의해서 적용되어 表面形式으로 도출된다는 관점을 취한다.

記述의 時點은 공시적 관점에서 記述할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삼았지만, 논의의 전개에 필요한 경우 통시적 사실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며, 현재 표준어로 선택되고 있는 서울지역어의 자료들도 제시하려고 한다.

音韻規則의 記述에 있어서 억제적(inhibiting) 기능과 조건적(conditioning) 기능을 가지는 境界(boundary)³⁾는 音節境界로 '\$' 를, 形態素 境界로 '+' 를, 單

2) 口蓋音化의 연구에서 '/t' / → /tʃ' /' 을 논의하는 것은 現代國語에서 形態素 境界에서 音節末音으로 /t' / 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는 통시적 연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3) 金政佑, "國語音韻論의 境界問題에 관한 研究", 「國語研究」, 第59號, 1984, p. 1.

語境界로 ‘#’를 그 기호로 쓰기로 한다.

濟州島의 방언연구는 따로 하지 않고, 하나의 방언권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현명효,⁴⁾ 박용후⁵⁾에 의해 현지조사된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현지조사는 V장을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연령층을 6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조천읍 함덕리, 안덕면 사계리, 대정읍 하모리, 서귀포시 등 네 곳에서 1992년 11월 7일부터 1992년 11월 25일까지 다섯 명의 提報者의 도움을 얻어 시행하였다.⁶⁾

3. 研究史

口蓋音化 規則에 대한 연구는 이 音韻規則이 완벽하게 공시적인 음운현상으로 記述될 수 없기 때문에 통시적인 연구에서 출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지역적 대상을 濟州島地域語에 한정시키지 않더라도, 口蓋音化의 통시적 연구⁷⁾는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세가지 유형의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 시기를

4)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第一輯 資料篇)」, (精研社, 1962)

5) 朴用厚, 「濟州方言研究(資料篇)」, (高大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8)

6) 본고를 위한 提報者의 선정은 조음기관과 청각기관에 이상이 없을 것, 본인과 배우자가 다같이 濟州島 출신일 것, 離島 경험이 없을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에 도움을 준 분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任公秋(여, 74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1252번지

梁允熙(남, 62세):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산 11-10번지

吳 順(여, 75세):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4467번지

柳華淑(남, 75세):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2804번지

許安善(여, 61세):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841-8번지

7) 口蓋音化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다음에 제시한 정도를 참조할 수 있다.

李明奎, “口蓋音化에 對한 文獻的 考察”, 「國語研究」第31號, 1974.

洪允杓, “口蓋音化에 대한 歷史的 研究”, 「진단학보」60, 1985.

金周弼, “口蓋音化에 대한 通時論的 研究”, 「國語研究」第68號, 1985.

성희제, “국어 구개음화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문헌에 의해서 추정하고, 세 규칙간의 상관 관계를 밝히면서 그 원리의 규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공시적 관점에서의 연구⁸⁾는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 환경과 그 적용에 대한 제한 조건을 살피면서 이를 規則化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경향은 生成音韻論(generative phonology)의 도입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 지역을 濟州島地域語에 한정시켜 볼 때, 우선 濟州島地域語의 口蓋音化 現象을 자료적 측면에서 발견하는 작업이 있었다.⁹⁾ 이 작업은 口蓋音化 현상의 지역적 분포를 밝혀내어 國語의 방언권을 구획하는 데에 목적을 두거나, 口蓋音化 現象을 濟州島地域語의 音韻論의 特性으로 논의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연구 업적으로 김광웅¹⁰⁾은 濟州島地域語의 音韻規則을 체계적으로 記述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지점을 설정하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規則化시키고 있는데,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生成音韻論과 構造主義 音韻論의 연구 방법을 적절히 조화시킨 노력이 돋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濟州島地域語의 전반적인 子音音韻現象에 대한 記述을 시도하면서 口蓋音化 現象에 주목한 홍

8) 공시적 관점에서 口蓋音化를 다룬 선행 연구는 다음에 제시한 정도를 참고할 수 있다.

이승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생성 음운 규칙", 「한글」제152호, 1973.

韓載賢, "國語 口蓋音化의 再檢討", 全北大「어학」第2輯, 1975.

Kim Soo-Gon, 「PALATALIZATION IN KOREAN」(탑출판사, 1976).

이병건, "현대 한국어의 구개음화 규칙", 「언어」제2권, 제1호, 1977.

——, "현대 한국어의 생성 음운론", (일지사, 1985), pp. 149-172.

朴種熙, "音韻變化의 制約性- n 口蓋音化를 中心으로-", 圓光大「論文集」第15集, 1981.

오정란,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위상", 「국어국문학」제103호, 1990.

9) 李崇寧, 「濟州島 方言의 形態論的 研究」(塔出版社, 1978), p. 7.

金亨奎, 「韓國方言研究(下卷)」(서울대학교 出版部, 1986), p. 413.

10) 金光雄, "濟州地域語의 口蓋音化에 대한 一研究", 제주대「논문집」제20집, 1985.

——, "濟州島 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성해의 연구¹¹⁾도 이와 같은 범주의 업적에 해당한다. 한편, 고동호¹²⁾는 濟州島地域語의 口蓋音化와 관련된 어휘들에 포함된 二重母音들이 口蓋音化를 전후로 어떤 音韻變化를 경험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研究史에 의하면, 濟州島地域語의 口蓋音化 規則은 전반적으로 연구자의 숫적 한계로 인해 학문적 관점에서 조명을 받기 시작한 연구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은 형편에 있다.

11) 洪誠海, “濟州 地域語의 子音音韻現象에 關한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87.

12) 高東浩, “제주방언의 구개음화와 이중모음의 변화”, 『언어학』 제13호, 1991.

II. 分節音의 辨別的 資質

音韻規則의 記述은 대상 地域語의 音韻體系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되는데, 濟州島地域語의 音韻體系는 주로 最少對立語를 발견하여 音素를 설정하는 構造主義的 研究方法으로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되었다.

構造主義 音韻論과 生成音韻論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가 音素를 音韻分析의 最小單位로 삼았고, 후자는 音素를 辨別的 資質의 集合體(bundle)로 보았다는 데에 있다.¹³⁾ 이 연구는 후자의 관점을 수용하므로 이 장에서는 본고에서 사용될 辨別的 資質(distinctive feature)의 소개를 위하여 각 分節音(segment)들의 辨別的 資質(distinctive feature)만을 子音, 母音, 滑音으로 나누어 표시하기로 한다.¹⁴⁾

1. 基底子音의 辨別的 資質

濟州島地域語의 子音體系는 /p, ph, p', t, th, t', tʃ, tʃh, tʃ', k, kh, k', s, s', m, n, ŋ, l/ 등 18子音體系로 수립되었는데,¹⁵⁾ 이들이 가지고 있는

13) 田相範, 「生成音韻論」(塔出版社, 1985), p. 30.

14) 여기에서 사용하는 辨別的 資質(distinctive feature)은 李基文·金鎮宇·李相億(1987:235)에 의해 작성된 것을 따랐는데, 다른점이 있다면 [delayed release]資質은 취급하지 않고 /tʃ, tʃh, tʃ'/에 [+strident]자질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濟州島地域語에 존재하는 母音 /v/에 대해서는 '[-high, +low, +back, +round]'로 규정하였다.

15) 濟州島地域語의 子音體系는 타지역어와 상이하지 않다. 다만 /h/를 어디에

辨別的 資質(distinctive feature)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p	p ^h	p'	t	t ^h	t'	tʃ	tʃ ^h	tʃ'	k	k ^h	k'	s	s'	ɱ	u	ŋ	l
syll.	-	-	-	-	-	-	-	-	-	-	-	-	-	-	-	-	-	-
cons.	+	+	+	+	+	+	+	+	+	+	+	+	+	+	+	+	+	+
son.	-	-	-	-	-	-	-	-	-	-	-	-	-	-	+	+	+	+
nasal.	-	-	-	-	-	-	-	-	-	-	-	-	-	-	+	+	+	-
cont.	-	-	-	-	-	-	-	-	-	-	-	-	+	+	-	-	-	+
strid.	-	-	-	-	-	+	+	+	-	-	-	-	+	+	-	-	-	-
lat.	-	-	-	-	-	-	-	-	-	-	-	-	-	-	-	-	-	+
ant.	+	+	+	+	+	-	-	-	-	-	-	-	+	+	+	+	-	+
cor.	-	-	-	+	+	+	+	+	-	-	-	-	+	+	-	+	-	+
asp.	-	+	-	-	+	-	-	+	-	-	+	-	-	-	-	-	-	-
glottal.	-	-	+	-	-	+	-	-	+	-	-	+	-	+	-	-	-	-
high	-	-	-	-	-	+	+	+	+	+	+	+	-	-	-	-	+	-
low	-	-	-	-	-	-	-	-	-	-	-	-	-	-	-	-	-	-
back	-	-	-	-	-	-	-	-	-	+	+	+	-	-	-	-	+	-
round	-	-	-	-	-	-	-	-	-	-	-	-	-	-	-	-	-	-

2. 基底母音의 辨別的 資質

濟州島地域語의 母音體系는 既存의 研究에서 10母音體系¹⁶⁾와 9母音體系¹⁷⁾로 異見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의 차이는 전자가 /a, a, i, e, o, u, E, ɔ, ɯ, ɥ/ 등 10개의 母音體系를 수립하고, 후자가 /i, e, ε, ɯ, a, a, u, o, v/ 등 9개의 母音體系를 수립했다는 데에 있다. 결국, 이들의 母音體系 수립의 차이는 /

소속시키는가에 따라 子音의 수가 하나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김광웅(1988: 21-22)은 滑音에, 정승철(1988: 11)은 子音에 소속시켰는데, 본고에서는 滑音(glide)에 소속시켰다.

16) 李崇寧, 前掲書, p. 1.

17) 玄平孝, "濟州島方言의 單母音設定", 「韓國言語文學」第2輯, 1964, p. 51.

e/와 /ɛ/의 辨別力과 /wi/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데, 母音體系의 수립이 본고에서 논의하려는 口蓋音化 規則의 記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나, 10母音體系에서 /ɔ/와 /ɛ/의 間音 /E/의 설정이 모호한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며, 濟州島地域語에서 /wi/가 單母音 /ɰ/로 나타나는 경향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9母音體系를 인정하기로 한다. 이들의 辨別的 資質 (distinctive feature)은 다음과 같다.

	i	e	ɛ	ɨ	a	ɑ	u	o	ɔ
high	+	-	-	+	-	-	+	-	-
low	-	-	+	-	-	+	-	-	+
back	-	-	-	+	+	+	+	+	+
round	-	-	-	-	-	-	+	+	+

3. 滑音의 辨別的 資質

滑音(glide)은 成節性이 없고, 子音性을 가지지 않은 [-syllabic, -consonantal]로 규정된다.¹⁸⁾ 濟州島地域語에서는 /j, w, h/가 滑音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¹⁹⁾ /j/는 '[sonorant, continuant, high]' 資質에 대해 +값을 가지며 /w/는 '[sonorant, continuant, high, back, round]' 資質에 대해 +값을 가진다. 따라서 /j/와 /w/는 [back]과 [round] 資質에 의해 辨別되며, /h/는 '[continuant, aspirated, low]' 資質에 대해 +값을 가진다.

18) LARRY M. HYMAN,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5), p. 44.

19) 滑音(glide)의 목록은 각 地域語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異見이 존재하고 있지만, 濟州島地域語의 경우에는 김광웅(1988:21-22)에 의해 Chomsky and Halle(1968:303)에서 설정한 Glide I(/w, y/), Glide II(/h, ʔ/)에서 /ʔ/를 組織外的 音素로 설정함으로써 '/j, w, h/'로 정확히 설정되었다.

Ⅲ. 濟州島地域語의 口蓋音化

1. 濟州島地域語의 口蓋音化 記述의 一般論

濟州島地域語의 口蓋音化 規則에 대해서 記述할 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이 音韻規則의 적용이 연령층에 따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t/-系 口蓋音化는 공시적으로 形態素 内部에서는 이미 적용이 완료된 規則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k/-系, /h/-系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은 연령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교육, 방송 매체, 교통수단의 발달 등의 요인으로 인해 /k/-系, /h/-系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권에서 벗어나 있던 서울·경기지역어가 濟州島地域語에 대해 改新派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k/-系, /h/-系 口蓋音化 規則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가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t/-系 口蓋音化

이 類型의 口蓋音化는 /t, tʰ, t'/가 /i, j/가 지니고 있는 [+high] 자질에 同化되어 /tʃ, tʃʰ, tʃ'/로 音韻變化를 일으키는 類型이다.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규칙은 해당 音韻의 音韻論的 位置, 해당 音韻을 포함하는 形態素 類型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규칙이었다. 그 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⁰⁾

20)(1)에 제시된 자료 외에 '찌>찌, 썩다>썩다, 씩다>짚다' 등 硬音이 口蓋音化 된 예들을 덧붙일 수 있다.

(1) ㄱ. 語彙形態素의 語頭

- 덕다 > 적다, 덕쇠 > 적쇠
- 던원 > 전원, 덩방 > 점방
- 덤심 > 점심, 덩절 > 정절
- 도곰 > 조금, 도문 > 조문
- 도화 > 조화, 둥다 > 좋다
- 디위 > 지위, 털헛다 > 칠하다

ㄴ. 語彙形態素의 非語頭音節

- 모딜다 > 모질다, 고티다 > 고치다
- 싸디다 > 빠지다, 바티다 > 바치다
- 어딜다 > 어질다, 이바디 > 이바지

ㄷ. 文法形態素 內部

- ㄹ 디어늘 > -ㄹ 지어늘
- ㄹ 디라도 > -ㄹ 지라도

위와 같은 /t/-系 口蓋音化가 일어나는 환경을 홍운표는 形態素 境界(R₁), 非語頭音節의 語彙形態素 構造 內部(R₂), 非語頭音節의 文法形態素 構造 內部(R₃), 語頭音節의 語彙形態素 構造 內部(R₄) 등 네가지로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²¹⁾

(2)	곧 + 이	고티 + 디	티다
R ₁	꺄치	_____	_____
R ₂	_____	고치디	_____
R ₃	_____	고치지	_____
R ₄	_____	_____	치다
	꺄치	고치지	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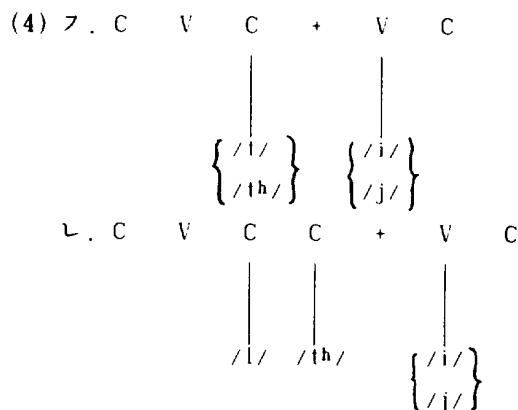
21) 洪允杓, 前揭論文, p. 150.

결국, /i/-系 口蓋音化 規則은 역사적으로는 위의 네가지 規則이 시기를 달리하여 적용되었으나,²²⁾ 音韻論的 位置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적용되던 規則이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規則化할 수 있다.

(3) 통시적 /i/-系 口蓋音化 規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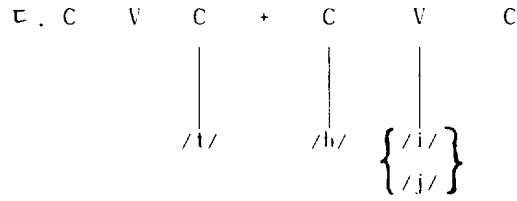
$$\begin{bmatrix} + \text{ cons} \\ + \text{ cor} \\ - \text{ son}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 \text{ strid} \\ - \text{ ant} \\ + \text{ high} \end{bmatrix} / \text{---} \begin{bmatrix} - \text{ cons} \\ + \text{ high} \\ - \text{ back} \end{bmatrix}$$

이러한 규칙이 形態素 構造 内部에서는 적용이 완료되어 再音素化의 과정을 거쳤고, 現代國語에서는 形態素 境界에서만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i/-系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되는 음운론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세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²³⁾



22)홍운표(1985:150)는 /i/-系 口蓋音化 規則은 (2)의 경우에서 R₁과 R₂가 제일 먼저 같은 시기에 적용되었고 그 다음에 R₃와 R₄가 적용되었다고 記述하고 있다.

23)(4)에서 제시한 유형은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는 서울지역어의 경우를 보인 것이데, 본고에서 '現代國語'라 함은 서울지역어를 가리킨다.



이 세가지 유형 중 (4.ㄱ)은 先行 形態素의 마지막 音節의 末子音(coda)이 /t, th/인 경우, (4.ㄴ)은 先行 形態素의 마지막 音節의 末子音(coda)이 /tth/의 연쇄인 子音群으로 되어 있는 경우, (4.ㄷ)은 先行 形態素의 마지막 音節의 末子音(coda)이 /t/이고 後行 形態素의 구조가 (4.ㄱ), (4.ㄴ)의 경우와는 달리 形態素 境界를 사이에 두고 /h/가 同化의 장벽이 되는 위치에 있으나 /t/-系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되는 유형이다. 이들 세 유형의 자료들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⁴⁾

- (5) ㄱ. 가을걷이 /kailkat+i/ → [kailgədzɪ]
 해돋이 /hətot+i/ → [hədodzɪ]
 굳이 /kut+i/ → [kudzɪ]
 같이 /kath+i/ → [katʃhi]
- ㄴ. 벼훑이 /pʃəhultʰ+i/ → [pʃəhultʃhi]
 핥이다 /haltʰ+i.ta/ → [haltʃhida]
 훑이다 /hultʰ+i.ta/ → [hultʃhida]
- ㄷ. 갈히다 /kat+hita/ → [katʃhida]
 받히다 /pat+hita/ → [patʃhida]
 걸히다 /kat+hita/ → [kətʃhida]
 묻히다 /mut+hita/ → [mutʃhida]
 굳히다 /kut+hita/ → [kutʃhida]

濟州島地域語에서도 위에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形態素 境界에서 /t/-系

24) 본고에서 사용하는 音節境界(\$), 形態素 境界(+), 單語境界(#)의 기호는 口蓋音化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만 표시하기로 한다.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되고 있음이 다음에 제시한 자료들에 의해 확인된다.

- (6) 못이(말이) /mɔt+i/ → [mɔdʒi]
 구뎀받이(쓰레받기) /kutɔmpat+i/ → [kudɔmbadʒi]
 뎀받이 /t'ɔmpat+i/ → [t'ɔmbadʒi]
 툃받이 /thɔkpat+i/ → [thɔkʰpadʒi]
 물받이 /mulpat+i/ → [mulbadʒi]
 풀돋잇마 /phultot+itma/ → [phuldodʒitʰma ~ phuldodʒinma]
 곧이 /kot+i/ → [kodʒi]
 곧이(같이) /kɔth+i/ → [kɔtʃhi]
 붙이다 /puth+ita/ → [putʃhida ~ putʃ'ida]
 피붙이 /phiputh+i/ → [phibutʃhi]

이와 같이 形態素 境界에서 적용되는 /t/-系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 이병건은 (5.ㄷ)의 유형에 대해 (7)과 같은 기식화 규칙을 수립하고 (8)과 같은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²⁵⁾

(7) 기식화 규칙(거울 영상)(Aspiration(Mirror Image))

$$\begin{array}{ccc}
 \left[\begin{array}{c} + \text{ obst} \\ - \text{ cont} \end{array} \right] & , \quad [-\text{seg}] , h & \\
 1 & 2 & 3 \Rightarrow \left[\begin{array}{c} 1 \\ + \text{ asp} \end{array} \right] \quad 2 \quad \left[\begin{array}{c} 3 \\ \emptyset \end{array} \right]
 \end{array}$$

(비연속 저해음, 즉 p, t, tʃ, k는 형태소 경계를 사이로 하고 h가 뒤따르거나 앞서면 기식화하고, 동시에 h는 탈락한다.)

25) 이병건, 前掲書, pp. 64-65.

(8) /tat + hi/

‘달히’

—————	중화 규칙
tath + i	기식화 규칙
tatʃh + i	구개음화 규칙
[tatʃhi]	

한재현도 口蓋音化의 과정에 관여하는 주변적인 규칙에 대한 설명없이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 순서에 대한 記述을 하고 있으나,²⁶⁾ 결과적으로는 이병건의 설명과 동귀의 것에 해당한다.

(9) U.R.	tat + hi + ta	
격음화	→ tath + hi + ta	regressive assimilation
	→ tath + i + ta	h-deletion
	→ tach + i + ta	palatalization

(9)의 내용은 기식화 규칙을 격음화로 命名하고 regressive assimilation(역행동화)과 h-deletion(h-삭제)의 과정으로 세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 이들이 설정한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 과정은 동일한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설득력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이들의 설명 방법은 한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설명 방식은 연음규칙이 전제되지 않고 /t, th/가 先行 形態素의 마지막 音節의 音節末 子音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기음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口蓋音化가 조음경제적인 동기에서 일어나는 音韻規則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t, th/와 /i, j/이 음운론적 연쇄로서 바로 이웃하

26) 韓載賢, 前揭論文, p. 74.

고 있는 '\$ti(j)\$, \$thi(j)\$'와 같은 형태로 音節構造가 재구성되기 전에는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설명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고에서는 연음규칙의 적용이 유기음화 규칙의 적용보다 순서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口蓋音化 規則보다 먼저 적용시키는 과정을 설정하기로 한다.

(10) /tat + hi/

'달히'

ta \$ thi 연음규칙

ta \$ thi 유기음화 규칙

ta \$ tʃhi /t/-系 口蓋音化 規則

[tatʃhi] 표면형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유기음화의 개념도 연음규칙에 의하여 도출된 구조 /th/가 音韻縮約의 형태로 유기음화 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h/-削除規則은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濟州島地域語의 /t/-系 口蓋音化 規則의 자료에 관련시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1) /mvt + i/

'몬이'

mv \$ ti 연음규칙

mv \$ tʃi /t/-系 口蓋音化 規則

[mvdʒi] 표면형

지금까지는 形態素 境界에서의 /t/-系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 환경과 적용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남은 문제는 形態素 境界에서 /t, th/와 /i, j/간에 同化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單語境界가 개입될 때, /t/-系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다.

우선, 形態素 境界에서 /t, th/와 /i, j/간에 同化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이	-을	-으로	-에
ㄱ.	숫 /sutʃh/	[suci]	[susil]	[susiro]	[suse]
ㄴ.	젓 /tʃatʃ/	[tʃaci]	[tʃasil]	[tʃasiro]	[tʃase]
ㄷ.	밭 /paθh/	[paçi]	[pasil]	[pasiro]	———— ㉞
ㄹ.	디근 /tikit/	[tigiçi]	[tigsil]	[tigihiro]	[tigise]

위의 자료들은 체언이 조사와 결합하여 곡용을 할 경우에 마지막 音節의 音節末音 /tʃh, tʃ, θh, t/이 /s/로 변화하여 실현된 예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여러 地域語에서 보편적인 規則으로 자리잡혀 가고 있어서 濟州島地域語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이 변화가 의무적인 규칙인가, 혹은 수의적인 규칙인가의 여부가 지역어간에 차이를 보인다. ㉞ 이 자료들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체언의 마지막 音節의 音節末音이 /t, θh/인 경우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과 직접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 /t/-系 口蓋音化 規則과 관련된 예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3)		-이	-을	-으로	-에
ㄱ.	풀 /phvθh/	[phvçi]	[phvsil]	[phvhiro]	[phvse]
	밭 /paθh/	[paçi]	[pasil]	[pasiro]	————
	솔 /soθh/	[soçi]	[sosil]	[sohiro]	————
	별 /pjath/	[peçi]	[pesil]	[pehiro]	[pese]
ㄴ.	디근 /tikit/	[tigiçi]	[tigsil]	[tigihiro]	[tigise]

27)이 경우는 濟州島地域語에서 處格 '-디'가 연결되므로 비워두었으며, (13) 제시한 자료들에서도 공란은 이에서 연유한다.

28)이승재(1983:185-186)는 전라남도 구례지역어의 경우에서 이러한 예를 보고

이 예들을 보면 곡용시에 체언의 마지막 音節의 音節末音 /t, th/가 /s/로 실현되어 되어 口蓋音化의 同化主인 /i/로 시작되는 조사가 연결되더라도 /t/-系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에 합당한 構造記述을 생성하지 않음으로써 규칙의 적용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濟州島地域語에서 이러한 경향은 체언의 마지막 音節의 音節末音이 /th/인 경우에는 교육의 간섭을 많이 받은 연소층인 경우 수의적으로 드러나며, /t/인 경우에는 연령층에 상관없이 (13.ㄴ)의 경우처럼 완전히 /s/로 실현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t/-系 口蓋音化 規則이 單語境界²⁹⁾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4) 깻잎 /k'et#iph/ → [k'ɛnipʔ]
 나뭇잎 /namut#iph/ → [namunipʔ]
 댕잎 /tɛt#iph/ → [tɛnipʔ]
 뒗입맛 /twit#ipmas/ → [twinipmatʔ]
 뒗입 /twit#il/ → [twinipil]
 허드렛일 /hatilet#il/ → [hədirenipil]
 헛약속 /hat#jaksok/ → [həupjakʔs'okʔ]
 밭일 /path#il/ → [panipil]

위에서 제시한 예들은 現代國語에서 單語境界를 사이에 두고 있으면서 口蓋

하고 있고, 각충구(1984:1)는 방언적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마찰음 /s/으로의 변화를 指向하고 있는 '單純化(simplification)'의 한 양상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최전승(1986:263)은 전북방언에서 음절말 자음 'ㄷ, ㅌ, ㅈ, ㅊ'를 갖고 있는 체언들은 파생법 및 자음과 休止(pause) 앞에서는 모두 미파음 [t]로 중화되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격어미와 연결되어 곡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마찰음 [s]로 실현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면서 이에 '재구조화'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29)본고에서 單語境界는 合成語 혹은 派生語의 제 2 구성요소가 單語임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音化 規則의 構造記述을 만족시키고 있는데, /t/-系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예들을 열거한 것이다.³⁰⁾ 濟州島地域語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 (15) 옷입바위 /ut#ippawi/ → [unpɪpʔp'awi]
 훌이불 /hoth#ipul/ → [honpɪbul]
 훗입맛 /hut#ipmas/ → [hunpɪmatʔ]
 훗일 /hut#il/ → [hunpɪl]
 밭일 /paθ#il/ → [pamɪl]
 초렛일 /tʃbɔljet#il/ → [tʃbɔrenpɪl]

위와 같이 單語境界가 개입되었을 때 표면적으로 口蓋音化의 構造記述을 만족시키더라도 /t/-系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김영기의 논의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우선 다음과 같은 네개의 音韻規則을 설정하고 있다.³¹⁾

- (16) ɰ. ɰ-Epenthesis(optional when a stem is polysyllabic)

$$\emptyset \rightarrow \text{ɰ} / C \emptyset \text{ — } \left. \begin{array}{c} i \\ j \end{array} \right\}$$

(ɰ is inserted after compound boundary when it is preceded by a consonant and followed by i or y. This change is optional if one or both of the stems are polysyllabic.)

30)이 경우 '사이시옷'의 실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순수하게 음운론적인 관점에 의거하여 허용(1985:287-288)의 'ㄷ 덧나기'라는 용어에 동조하기로 한다. 물론 /s/가 삽입된 다음 /t/로 중화되는 과정을 상정하여도 무방하다.

31)(16)에 제시한 규칙들은 필자가 김영기(1975)의 논문에서 각기 다른 주제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칙들을 모은 것이다.

ㄴ. Palatalization

$$\left[\begin{array}{l} + \text{cor} \\ - \text{flap} \\ \langle +\text{occlusive} \rangle \end{array} \right] \rightarrow [+pal] / \text{---} \langle - \rangle (h) \left[\begin{array}{l} + \text{pal} \\ + \text{high} \end{array} \right]$$

Cond: optional for word initial n.

(A nonflap dental becomes palatal when followed by a high palatal segment regardless of an intervening h. A t is palatalized only across a morpheme boundary.)

ㄷ. Stop Nasalization

$$[-\text{cont}] \rightarrow [+nas] / \text{---} [+nas]$$

(A stop is nasalized before a nasal segment.)

ㄹ. Polysyllabic Vowel Shortening

$$V \rightarrow [-\text{long}] VC_0 \text{---}$$

(A long vowel is shortened in a second or later syllable.)

그는 合成語 境界(compound boundary)에서의 /n/-添加規則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音韻規則들을 세우고 이 규칙들이 (17)에서 제시한 순서로 적용되는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³²⁾

(17) /paθ n̩ i:l/	'field chore'
pathni:l	<u>n-Epenthesis</u>
pachpi:l	<u>Palatalization</u>
pappi:l	<u>Stop Nasalization</u>
[pappil]	<u>Polysyllabic Vowel Shortening</u>

위의 설명 방식을 그대로 單語境界에서의 口蓋音化와 관련시켜보면, 單語境界에서 /n/-添加(epenthesis)規則이 적용되어 先行 子音 /θ/의 연음을 막아 口蓋音化 規則의 構造記述을 만족시키지 않게 됨으로써 /t/-系 口蓋音化 規則

32) Kim Young-Key,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PAGODA PRESS, 1975), p. 150.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ɪ/-添加(epenthesis)規則은 構造主義 音韻論의 이론 체계에서는 '/ㄴ/-덧나기'³³⁾ 정도로 설명되어 오던 것으로, 현재로서는 이 이상의 說明方法은 찾기 힘들지만,³⁴⁾ 濟州島地域語에서는 꼭 /ɪ/이 添加되는 것이 單語境界에서 /ㄴ/-系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 (18) 훌이불 /hoth#ipul/ → [hotʔt'ibul]
발일 /path#il/ → [patʔt'il]
밭임자 /path#imtʃa/ → [patʔt'imdʒe]
웃임자 /os#imtʃa/ → [otʔt'imdʒe]
헛약속 /hat#jaksok/ → [hatʔt'jakʔs'okʔ]

위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보면 濟州島地域語에서는 單語境界 앞의 形態素, 혹은 單語의 音節末音を 內破시키고 나서 이를 單語境界 뒤의 單語의 語頭に 添加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러한 音韻의 添加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規則의 설정이 필요하다.

- (19) /t/-添加規則

$$\emptyset \rightarrow t / t \# \text{ — } \left\{ \begin{array}{l} i \\ j \end{array} \right\}$$

(單語境界를 사이에 두고 先行形態素 혹은 單語의 마지막 音節의 音節

33)허웅, 「國語音韻學」(正音社, 1983), pp. 267-268.

34)선행 연구에서도 각기 설명 방법과 규칙순의 차이는 있지만 본고에서 논의되는 현상에 대해서 '첨가', 혹은 '삽입'이라는 관점은 동일하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논문을 참조할 것.

金政佑, 前掲論文, pp. 34-40.

奇世官, "國語 單語形成에서의 /ㄴ/ 脫落과 /ㄴ/ 添加에 대한 音韻論的 研究",

圓光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0.

고광모, "ㄴ 첨가와 사이시옷에 대한 연구", 「언어학」제14호, 1992.

末音이 /i/이고, 單語境界 뒤의 單語의 音節構造가 /i/ 혹은 /j/로 시작되면 그 音節初에 /i/가 添加되며, 이 規則의 적용은 수의적이다.)

위의 규칙에 의해 單語境界 앞의 /i/가 연음될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i/-系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을 피하게 된다. 물론, 이 規則은 義務적으로 적용되는 規則은 아니어서 (15)에 제시한 것과 같이 /n/-添加規則을 따르는 자료들도 문법성이 인정되므로 濟州島地域語에서 /n/-添加規則과 /i/-添加規則은 각각 隨意的인 規則이 된다. 결국, 濟州島地域語에서는 口蓋環境에서 單語境界 앞의 /i/의 연음을 막아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을 피하도록 하는 방식이 /n/-添加規則과 /i/-添加規則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i/-系 口蓋音化 規則은 공시적으로 形態素 境界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規則化할 수 있다.

(20) /i/-系 口蓋音化 規則

$$\begin{bmatrix} + \text{ cons} \\ + \text{ cor} \\ - \text{ son} \end{bmatrix} \rightarrow \begin{bmatrix} + \text{ strid} \\ - \text{ ant} \\ + \text{ high} \end{bmatrix} / \text{---} + \begin{bmatrix} - \text{ cons} \\ + \text{ high} \\ - \text{ back} \end{bmatrix}$$

3. /k/-系 口蓋音化

/k/-系 口蓋音化는 /i/와 /j/가 가지고 있는 [-back] 資質의 영향으로 /k, kh, k'/가 경구개음인 /tʃ, tʃʰ, tʃ'/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同化現象을 일컫는데, 이 音韻規則이 적용되는 지역적 분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조사, 보고되었다.³⁵⁾

35) 이 경우 /i/는 원래의 /i/는 물론이고, 中和된 /i/도 포함한다.

36) 金亨奎, 前掲書(上卷), p. 11.

(21) 길 /kil/

tʃil - [京畿] 안성. [江原][忠北][忠南][全北][全南][慶北][慶南][濟州] 전부 - [江原] 通川, 長箭, 平康. [咸南] 新高山, 安邊, 元山, 德源, 文川, 高原, 永興, 定平, 咸興, 五老, 新興, 洪原, 利原, 北靑, 豐山, 甲山, 惠山.

이와 같은 규칙 적용의 지역적 분포를 갖는 /k/-系 口蓋音化 規則이 동일 序列의 音韻 /k, kh, k'/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위해 濟州島地域語에서의 /k/-系 口蓋音化 規則을 /k/-口蓋音化, /kʰ/-口蓋音化, /k'/-口蓋音化로 세분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우선, 濟州島地域語에서의 /k/-口蓋音化는 語頭의 位置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쉽게 발견된다.

(22) 길 /kil/ → [tʃil]

- 겨를 /kjalil/ → [tʃaril ~ tʃari]
- 겨울 /kjaul/ → [tʃasil]
- 계집 /kjetʃip/ → [tʃedʒipʰ ~ tʃidʒipʰ]
- 김(蒸氣) /kim/ → [tʃim]
- 기름 /kilim/ → [tʃirim]
- 기침 /kitʃhim/ → [tʃitʃhim]
- 겨우 /kjəu/ → [tʃeu]
- 기르다 /kilita/ → [tʃilluda]
- 길다 /kitta/ → [tʃilda]
- 길다 /kilta/ → [tʃilda]
- 기울다 /kiulta/ → [tʃiulda]
- 깊다 /kipta/ → [tʃipʰt'a ~ tʃiphida]

이 예들은 固有語이면서 單一語인 경우, /k/-口蓋音化 規則이 適用되는 예들을 열거한 것인데, 語彙範疇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語頭의 位置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이 어휘들이 派生語 形成, 合成語 形成 등의 語彙形成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23) 한길 /hankil/ → [handzil]
 동산길 /tongsankil/ → [tongsautʃ'il]
 헛기침 /hakitʃhim/ → [hətʃitʃihim ~ hatʃ'itʃhim]
 존기침(잔기침) /tʃonkitʃhim/ → [tʃondzihim]
 콧김 /khotkim/ → [khotʃ'im]
 겹이불 /kɟapipul/ → [tʃapʔibul ~ tʃap'ibul]
 겹담 /kɟaptam/ → [tʃapʔ'am]
 겹옷 /kɟapos/ → [tʃapʔotʔ ~ tʃabotʔ]
 길짐승 /kiltʃimsig/ → [tʃiltʃ'imsig]
 콩기름 /khongkilim/ → [khongdzirim]
 누물기름(나물기름) /numulhkilim/ → [numultʃhirim]
 뚝박기름(동백기름) /tompakkilim/ → [tombakʔtʃirim]
 뚝기름(돼지기름) /toskilim/ → [totʔtʃ'irim]
 참기름(참기름) /tʃhɒmkilim/ → [tʃhɒmdzirim]
 기름떡 /kilimt'ak/ → [tʃirimt'akʔ]
 길들다 /kiltilla/ → [tʃildilla]

위의 예를 보면 派生語를 형성하거나 合成語를 형성할 때, 단일어로서 /k/- 口蓋音化 規則의 適用을 받는 형태이면, 이들이 派生語나 合成語의 구성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이더라도 반드시 口蓋音化된 형태로 나타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k/-系 口蓋音化 規則이 語彙形成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音韻規則이 아니라, 語彙形成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적용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語頭에서의 /k/-口蓋音化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漢字語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24) 결혼(結婚) /kjalhon/ → [tʃalhon ~ tʃallon]
 결심(決心) /kjalɕim/ → [tʃalɕ'im]
 경험(經驗) /kjaŋham/ → [tʃaŋham]
 결과(結果) /kjal kwa/ → [tʃal kwa]
 결산(決算) /kjal san/ → [tʃal s'an]
 결정(決定) /kjal tʃaŋ/ → [tʃal tʃ'aŋ]
 경솔(輕率) /kjaŋsol/ → [tʃaŋsol]
 교사(教師, 校舍) /kjo sa/ → [tʃo sa]
 교제(交際) /kjo tʃe/ → [tʃo dʒe]
 규칙(規則) /kjo tʃhik/ → [tʃo tʃhikʰ]
 규정(規定) /kjo tʃaŋ/ → [tʃo dʒaŋ]

漢字語의 경우에도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語頭의 위치에서 随意的으로 /k/-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되고 있다. 漢字語의 /k/-口蓋音化와 관련하여 최명옥은
 선행 연구에 동조하면서 漢字語는 /k/-口蓋音化에서 제외되었으며 言衆의 의식
 에 漢字語라고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에 口蓋音化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데,³⁷⁾
 固有語와 漢字語의 음운론적 행위가 다를 수는 있으나, 그가 염두에 두고 있
 는 漢字語라는 인식의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口蓋音化의 경우는 제시된
 자료에서 드러나듯이 꼭같은 환경에서 固有語와 漢字語가 音韻規則의 적용을
 달리 받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漢字語와 固有語의 口蓋音化 規則의 記述을
 달리함으로써 記述의 一般性을 간과하기 쉬운 점을 고려하여 固有語와 漢字語
 의 /k/-口蓋音化 規則의 적용에는 구별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소박한 言
 衆들의 語彙體系에 漢字語가 과연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스
 러운 점으로 남는다. 현지조사에서 提報者들로부터 얻은 다음과 같은 漢字語
 자료는 /k/-口蓋音化 規則의 적용이 완벽하게 의무적인 것은 아니어서 수의적
 인 경향으로 드러난다.

37) 崔明玉, 前掲書, pp. 64-65.

- (25) 각출(醜出) /kjakʔʃhul/ → [kjakʔʃhul ~ kakʔʃhul ~ tʃakʔʃhul]
 겸손(謙遜) /kjamson/ → [kjamson ~ tʃamson]
 결석(缺席) /kjalsak/ → [kjals'akʔ ~ tʃals'akʔ]
 경비(經費) /kjægpi/ → [kjægbi ~ tʃægbi]
 경력(經歷) /kjægʎjak/ → [kjægʎjakʔ ~ tʃægʎjakʔ]
 결박(結縛) /kjəlpak/ → [kjəlpakʔ ~ tʃəlpakʔ]
 교태(矯態) /kjoʔhɛ/ → [kjoʔhɛ ~ tʃoʔhɛ]
 교만(驕慢) /kjoman/ → [kjoman ~ tʃoman]
 규율(規律) /kjujul/ → [kjujul ~ tʃujul]
 규범(規範) /kjupam/ → [kjubam ~ tʃubam]
 규모(規模) /kjumo/ → [kjumo ~ tʃumo]

漢字語의 口蓋音化와 관련하여 박용후도 濟州島地域語에서의 漢字音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어서 漢字語에서도 固有語에서와 마찬가지로 /k/-口蓋音化規則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³⁸⁾

- (26) 각[gyag] > 작[jag] 醜
 격[gyeog] > 적[jeog] 格擊隔檄
 견[gyeon] > 전[jeon] 見堅牽肩絹
 결[gyeol] > 절[jeol] 缺決訣結潔挾
 겸[gyeom] > 점[jeom] 兼謙
 경[gyeong] > 정[jeong] 景更梗京經徑輕敬警驚竟境頃耕慶卿
 교[gyo] > 조[jo] 校教巧交郊蛟喬橋攪
 규[gyu] > 주[ju] 圭奎珪閨糾規窺
 균[gyun] > 준[jun] 菌均鈞勻
 굴[gyul] > 줄[jul] 橘

38) 朴用厚, 前掲書, p. 204.

(26)에 인용된 자료의 音聲記號는 저자의 것을 그대로 따왔는데, '규[kyu]>주[ju]'의 예에 '畦(휴)'를 넣고 있어서 본고에서는 이를 배제하였다.

기[gi] > 지[ji] 奇紀其岐者嗜企記
 각[gig] > 직[jig] 喫
 간[gin] > 진[jin] 緊
 길[gil] > 질[jil] 吉拮
 감[gim] > 짐[jim] 金

그런데, 이 자료들에 음운론적 환경을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音韻論的 位置에서나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실현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떤 音韻論的 位置에서나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실현된다면 /k/-系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되는 환경을 語頭音節 以下까지 확장하여 記述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語頭音節 以下の 位置에 위에 열거한 漢字를 포함하고 있는 어휘들이 어떤 음성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 (27) 품격(品格) /phumkjak/ → [phumk'jakʔ, *phumdʒakʔ ~ phumtʃ'akʔ]
 소견(所見) /sokjan/ → [sogjan, *sodʒan]
 해결(解決) /hækjal/ → [hægjal, *hədʒal]
 변경(變更) /pjankjaŋ/ → [pjaŋjaŋ ~ penŋjaŋ, *pjaudʒaŋ]
 사교(社交) /sakjo/ → [sagjo, *sadʒo]
 내규(內規) /nækju/ → [nægju, *nədʒu]
 평균(平均) /phjaŋkjuŋ/ → [phjaŋgjuŋ ~ phəŋgjuŋ, *phjaŋdʒuŋ]
 요긴(要緊) /jokin/ → [jogin, *jodʒin]
 불길(不吉) /pulkil/ → [pulgil, *puldʒil]

결국, 위에서 보듯이 현지조사에서 발견되는 자료들에 의하면 박용후의 자료는 濟州島地域語에서의 /k/-系 口蓋音化를 다분히 의식한 상태에서 記述한 것이고, 또한 語頭的 위치에 한정된 漢字音이라는 전제를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系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되는 音韻論的 位置를 語頭音節 이하로 내려서 記述할 필요는 없다.

한편, 濟州島地域語에서는 사역·피동의 접사로서 現代國語의 '-기-'에 해당

하는 '-지-'가 발견되고 있어서 語頭音節 이하에서의 /k/-口蓋音化의 가능성을 검토하게 한다.

- (28) 웃지다 /ustʃita/ → [utʰʃʰida ~ utʃʰida]
 업지다 /apʃita/ → [apʰʃʰida]
 굶지다 /kolmtʃita/ → [kolmtʃʰida]
 굶지다 /kulmtʃita/ → [kulmtʃʰida]
 신지다 /sintʃita/ → [ɕintʃʰida]

그러나, 이 자료들에서 '-지-'는 濟州島地域語에서 現代國語의 사역·피동의 접사 '-기-'가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을 받은 형태는 아니고 중세어의 '맛디-(任)'가 '맛지-'의 중간 단계를 거쳐 現代國語의 '말기-'로 변한 것³⁹⁾과 동귀의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中世國語의 사역·피동 접사의 역사적 변화 과정에서 그 중간 단계의 것이 濟州島地域語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濟州島地域語에서 사역·피동의 접사 '-기-'의 경우에만 語頭音節 이하에서 /k/-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공식적으로 사역·피동의 접사로서 '-기-'와 '-지-'가 대등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⁴⁰⁾

다음으로 /kh/의 口蓋音化는 '키(箕)/khi/ → [tʃhi]' 정도가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口蓋環境에서 語頭音으로 /k/를 갖는 어휘보다 /kh/를 어두음으로 갖는 어휘수가 적기 때문이다. 또한 口蓋環境에서 /kh/를 語頭音으로 갖고 있으면서 口蓋環境에 놓인 서울지역어의 어휘들과 비교해 볼 때, 濟州島地域語에서는 이와는 다른 형태의 어휘들이 쓰여 현지조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39)李基文, 「國語史概說」(塔出版社, 1986), p. 200.

40)송상조(1990:109-110)는 濟州島地域語에서 움직씨 뿌리에 통합되는 '하임 입음'의 접미사 목록으로 '-구-, -기-, -리-, -에기-, -우-, -이-, -이우-, -지-, -치-, -치우-, -후-, -히-' 등을 설정하고 있다.

보이며,⁴¹⁾ 漢字語도 口蓋環境에서 語頭に /kh/를 가지고 있는 어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희귀하지만 '키(箕) /khi/ → [tʃhi]'의 자료로써 /kh/의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은 확인할 수 있다.

/k'/의 口蓋音化도 /kh/와 마찬가지로 어휘수가 극도로 적어, 그나마 提報者들로부터 채집된 자료들에서도 /k'/의 口蓋音化는 소수의 자료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 (29) 끼다(着用) /k'ita/ → [tʃ'ida]
껴입다 /k'jaipta/ → [tʃ'aip>'a]

위의 자료는 濟州島地域語에서 /k'/가 語頭の 位置에서 口蓋音化된 예들인데, 이 예들을 제외하면 語頭の 位置에서도 /k'/의 口蓋音化 規則이 適用되지 않는 자료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 (30) 깍연 /k'ikjan/ → [k'igjan]
깍새 /k'imse/ → [k'imse]
끼치다 /k'itʃhita/ → [k'itʃhida]
껴안다 /k'jaanta/ → [k'jaant'a]
껴잡다 /k'jatʃapta/ → [k'jadʒap>'a]

이 자료들은 /k'/의 경우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 환경인 語頭音節에서도 보편적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k/-系 口蓋音化 規則이 語頭の 位置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이상, 다른 音韻論的 位置로 規則의 적용이 확대되어 갈 소지를 안고 있었으나, 이 規則의 적용이 지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41) 예를 들어 '컬레, 켄, 켜다' 등의 어휘가 濟州島地域語에서 쓰인다면 혹시 口蓋音化의 자료가 발견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컬레'에 대해서 '배', '켄'에 대해서 '쪽, 착', '켜다'에 대해서 '싸다'가 쓰이고 있어서 이들 자료에 대한 口蓋音化의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루어져 ㄱ蓋音化의 規則의 적용 위치이던 語頭音節에서조차도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音韻規則이었음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시적으로 ㄱ蓋音化 規則이 적용되지 않는 不透明形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k/-系 ㄱ蓋音化를 規則化하기 위해서는 /k/-系 ㄱ蓋音化는 앞에서 記述한 /i/-系 ㄱ蓋音化와 마찬가지로 통시적으로 /ij/에서 온 /i/앞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 (31) 飢渴(飢渴) > 기갈 /kikal/ → [kigal, *tʃigal]
 器具(器具) > 기구 /kiku/ → [kigu, *tʃigu]
 기러기 > 기러기 /kilaki/ → [kiragi, *tʃiragi]
 기록(記錄) > 기록 /kilok/ → [kirokʔ, *tʃirokʔ]
 麒麟 > 기린 /kilin/ → [kirin, *tʃirin]
 期約(期約) > 기약 /kijak/ → [kijakʔ, *tʃijakʔ]
 氣運(氣運) > 기운 /kiun/ → [kiun, *tʃiun]
 기별 > 기별 /kipjal/ → [kibjal ~ kibel, *tʃibjal ~ tʃibel]
 기다 > 기다 /kita/ → [kida, *tʃida]

이 예들이 ㄱ蓋音化 規則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i/-系 ㄱ蓋音化와 마찬가지로 /k/-系 ㄱ蓋音化가 시작되었을 시기에는 ‘/ij/ > /i/’로의 音韻變化가 일어나지 않아 이들 어휘들이 ㄱ蓋音化 規則의 적용에 합당한 構造記述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²⁾ 그러므로, ‘/ij/ → /i/’의 변화를 우선 (32)와 같이 規則化하고, 이 規則의 적용으로 生成된 /i/는 /k/-系 ㄱ蓋音化 規則의 同化主

42) 허웅, 前揭書, pp. 444-445.

이러한 이유 때문에 /i/-系 ㄱ蓋音化 規則에서도 공시적으로 ‘어디>어디, 부딪>부디, 드딪어>드디어, 견디다>견디다, 버딪다>버티다, 툇글>티끌’ 등과 같은 不透明形들이 나타나게 된다. 앞에서 /i/-系 ㄱ蓋音化 規則을 논의하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이유는 /i/-系 ㄱ蓋音化 規則이 공시적으로 形態素 境界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면 된다.⁴³⁾

$$(32) \begin{array}{l} \text{ㄱ.} \\ \text{ㄴ.} \end{array} \left[\begin{array}{l} + \text{ syll} \\ + \text{ high} \\ - \text{ round} \end{array} \right] \rightarrow [-\text{back}] / \text{---} \left[\begin{array}{l} - \text{ syll} \\ - \text{ cons} \\ - \text{ back}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l} - \text{ syll} \\ - \text{ cons} \\ - \text{ back} \end{array} \right] \rightarrow \emptyset / \left[\begin{array}{l} + \text{ syll} \\ + \text{ high} \\ - \text{ back} \end{array} \right] \text{---}$$

결론적으로, /k/-系 口蓋音化 規則은 語頭의 位置에서 적용되며, 통시적으로 (32)에 제시한 規則의 적용으로 生成된 /i/는 口蓋音化 規則의 同化主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 規則이 漢字語의 경우 수의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규칙화할 수 있다.

(33) /k/-系 口蓋音化 規則

$$\left[\begin{array}{l} + \text{ cons} \\ - \text{ ant} \\ - \text{ son} \end{array} \right] \rightarrow \left[\begin{array}{l} + \text{ strid} \\ + \text{ cor} \\ - \text{ back} \end{array} \right] / \# \text{---} \left[\begin{array}{l} - \text{ cons} \\ + \text{ high} \\ - \text{ back} \end{array} \right]$$

(조건: 이 규칙은 규칙(32.ㄱ, ㄴ)의 적용으로 生成된 '/i/' 앞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漢字語의 경우 수의적으로 적용된다.)

43) '/ij/ → /i/'로의 변화를 規則化할 때 이 規則이 構造主義 音韻論의 관점에서 'ij/ → /i/'로만 표시하여 單母音化로 설명하면 되지만, 生成音韻論의 관점에서는 이 規則을 두 개의 規則으로 표시하여야 된다. 이 경우의 문제점은 /i/가 /i/로 변화된 다음에 /j/가 탈락한 것인지 /j/가 먼저 탈락하고 /i/가 /i/로 변화한 것인지 선후 관계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規則을 설정함에 있어서 規則이 적용되는 환경 표시가 전자의 방법이 용이하므로 이를 따랐으나, 이 規則 자체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이 두 規則이 '/ij/ → /i/'의 변화를 規則化하는 데에 동시에 관여한다는 점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4. /h/-系 口蓋音化

/h/-系 口蓋音化는 /h/가 /i, j/ 앞에서 /s/로 변화하는 유형의 규칙, 즉 '/h/ → /s/'로 정의되어 온 規則으로서, 이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의 규칙을 포괄한다.⁴⁴⁾

- (34) ㄱ. h → ɣ → ɸ → s
형 /hjaŋ/ → [ɣjaŋ] → [ɸjaŋ] → [saŋ]
ㄴ. h → ɣ → ɸ
힘 /him/ → [ɣim] → [ɸim]

口蓋環境에서 /h/는 [ɣ]로 口蓋音化하고, [ɣ]이 음소적으로 /s/로 표기되는 [ɸ]로 口蓋音化 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의 두 유형은 모두 /h/의 경구개 변이음 [ɣ], /s/의 경구개 변이음 [ɸ]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여기에서, (34.ㄱ)의 경우 /s/는 경구개음이 아닌 치조음이므로 'h → ɣ → ɸ'의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된 후에 다시 'ɸ → s'⁴⁵⁾로의 변화에 대한 規則이 전제되어야 이 유형을 口蓋音化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러한 /h/-系 口蓋音化 규칙이 적용되는 지역적 분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⁴⁶⁾

44) /h/의 口蓋音化의 명칭에 '系'를 넣은 것은 규칙 적용의 대상 音韻은 '/h/' 하나 뿐이지만 (34)에 제시한 것처럼 이 規則이 두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45) 이는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 후에 /j/가 削除되어 /h/가 口蓋音化된 [ɸ]이 口蓋音으로 남아있을 명분이 없어지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46) 金亨奎, 前掲書(下卷), p. 61.

(35) 혀 /hja/

- se - [京畿] 약간, [江原] 전부, [忠北] 약간, [忠南][全北][全南] 소수, [慶北] 다수, [慶南] 소수, [濟州] 전부, [黃海] 소수, [咸南] 전부, [咸北] 약간.
- sep'adək - [京畿][江原][黃海] 소수.
- sek'it - [黃海] 소수.
- set'ε - [咸南] 소수.
- set'εgi - [咸南] 약간.
- set'ii - [咸北] 대부분.
- s'e - [全北] 약간, [全南] 다수, [慶北] 소수, [慶南] 약간.
- s'et'εgi - [慶北] 소수.
- sε - [全南][慶北][慶南] 소수.
- s'ε - [全南][慶北][慶南] 소수.
- s∅ - [京畿][忠北] 약간, [忠南] 소수.
- s'∅ - [慶北][慶南] 소수.
- sə - [江原]鐵原, [忠南] 대부분, [全北] 약간, [全南] 소수.
- s'a - [全南] 소수.
- sək'al - [黃海] 소수.
- sək'it - [黃海] 약간.
- ʃi - [慶北] 소수.
- ʃ'i - [慶北][慶南] 소수.

이와 같은 /h/-系 口蓋音化 規則은 濟州島地域語에서는 앞에서 記述한 /k/-系 口蓋音化 規則과 마찬가지로 固有語와 漢字語의 구분없이 語頭の 位置에서 적용된다. 우선 固有語의 예를 들기로 한다.

(36) 힘 /him/ → [ɕim]

- 힘줄 /himsul/ → [ɕimsul]
- 힘줄기 /himsulki/ → [ɕimsulgi]
- 힘내다 /himneda/ → [ɕimneda]

힘세다 /himseta/ → [ɕims'eda]
 힘쓰다 /hims'ita/ → [ɕims'ida]
 힘들다 /himtilta/ → [ɕimdilda]
 혀 /hja/ → [se]
 혃바닥 /hjatpatak/ → [sep'adakʔ]
 혃가시(혃바늘) /hjatkasi/ → [sek'aɕi]
 혃굽(舌根) /hjatkup/ → [setʔk'upʔ ~ sek'upʔ]
 혃끝 /hjak'ith/ → [sek'itʔ]
 혃줄기 /hjatʃulki/ → [setʔtʃ'ulgi ~ setʃ'ulgi]

이 예들을 보면 語頭의 /h/가 /i, j/ 앞에서 음소적으로 /s/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漢字語의 경우는 固有語보다 /h/가 口蓋環境에 있는 어휘 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固有語보다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 (37) 향(香) /hjaŋ/ → [saŋ]
- 향교(鄉校) /hjaŋkjo/ → [saŋgjo]
 - 향기(香氣) /hjaŋki/ → [saŋgi]
 - 향합(香盒) /hjaŋhap/ → [saŋhapʔ ~ saŋapʔ]
 - 형(兄) /hjaŋ/ → [saŋ]
 - 형제(兄弟) /hjaŋtʃe/ → [saŋdʒe]
 - 효녀(孝女) /hjonjæ/ → [sonjæ]
 - 효심(孝心) /hjosim/ → [soɕim]
 - 효자(孝子) /hjoʃja/ → [sodʒa ~ sodʒe]
 - 효도(孝道) /hjoto/ → [sodo]
 - 흉(凶) /hjuŋ/ → [suŋ]
 - 흉물(凶物) /hjuŋmul/ → [suŋmul]
 - 흉악(凶惡) /hjuŋak/ → [suŋakʔ]
 - 흉기(凶器) /hjuŋki/ → [suŋgi]
 - 흉년(凶年) /hjuŋjan/ → [suŋjan]

위와 같은 漢字語의 /h/-系 口蓋音化와 관련하여 前述한 /k/-系 口蓋音化와

마찬가지로 최명옥은 言衆의 의식에 漢字語라고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에 口蓋音化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데,⁴⁷⁾ /h/-系 口蓋音化에서도 /k/-系 口蓋音化와 마찬가지로 記述의 一般性を 고려하여 固有語와 漢字語의 /h/-系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에는 구별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h/-系 口蓋音化 規則의 경우도 /k/-系 口蓋音化 規則과 마찬가지로 漢字語에서는 수의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는 있었다.

- (38) 향속(鄉俗) /hjagsok/ → [ɕjagsokʔ ~ sagsokʔ]
 향리(鄉里) /hjaŋli/ → [ɕjaŋli ~ saŋli]
 혐의(嫌疑) /hjamij/ → [ɕjami ~ sami]
 형편(形便) /hjaŋphjan/ → [ɕjaŋphjan ~ heŋpheu ~ saŋphjan]
 혐오(嫌惡) /hjamɔ/ → [ɕjamɔ ~ samɔ]
 형세(形勢) /hjaŋse/ → [ɕjaŋse ~ saŋse]
 효력(效力) /hjoŋjak/ → [ɕjoŋjakʔ ~ soŋjakʔ]
 휴가(休暇) /hjuka/ → [ɕjuga ~ suga]

이와 관련하여 박용후는 濟州島地域語에서의 漢字音を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어 漢字語에서도 /h/-系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⁸⁾

- (39) 향 [hyang] > 상 [sang] 香向享鄉餉饗
 현 [hyeon] > 선 [seon] 現玄弦賢懸顯
 혈 [hyeol] > 설 [seol] 血穴
 혐 [hyeon] > 심 [seom] 嫌
 협 [hyeob] > 섭 [seob] 脅協夾挾狹
 형 [hyeong] > 성 [seong] 兄形刑荊型亨螢
 효 [hyo] > 소 [so] 孝效肴

47) 崔明玉, 前掲書, pp. 64-65.

48) 朴用厚, 前掲書, p. 204.

(39)에 인용된 자료의 음성기호는 著者の 것을 그대로 따왔음을 밝혀둔다.

휴 [hyu] > 수 [su] 休携
 흘 [hyul] > 술 [sul] 恤謫
 흥 [hyung] > 승 [sung] 匈胸凶兇
 힐 [hil] > 실 [sil] 詰

이와 같은 漢字들이 만약 어떤 音韻論的 位置에서나 (39)에서 열거한 방식으로 실현된다면 /h/-系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되는 환경을 語頭音節 이하까지 확장시켜 記述해야 한다. 현지조사에 의하면, (40)에 제시한 것과 같이 濟州島地域語에서 語頭音節 以下の 위치에서는 /h/-系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39)에 제시한 자료들은 /k/-系 口蓋音化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語頭的 位置'라는 제한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 (40) 고향(故鄉) /kohjag/ → [kohjag ~ kojag, *kosag]
 분향(焚香) /pohjag/ → [pohjag ~ pohjag, *punsag]
 실현(實現) /silhjan/ → [silhjan ~ siljan, *siljan]
 선현(先賢) /sanhjan/ → [sanhjan ~ sanjan, *sansan]
 선혈(鮮血) /sanhjal/ → [sanhjal ~ sanjal, *sansal]
 무협(武俠) /muhjap/ → [muhjap' ~ mujap', *musap']
 참형(斬刑) /tshanhjag/ → [tshanhjag ~ tshanhjag, *tshamsag]
 불효(不孝) /pulhjo/ → [pulhjo ~ purjo, *pulso]
 특효(特效) /thikhjo/ → [thikhjo, *thik'so]
 연휴(連休) /janhju/ → [janhju ~ janju, *jansu]
 제휴(製携) /tsehju/ → [tsehju ~ tseju, *tjesu]
 원흉(元兇) /wanhjung/ → [wanhjung ~ wanjung, *wansung]
 구휼(救恤) /kohjul/ → [kohjul ~ kujul, *kusul]

지금까지 논의한 濟州島地域語에서의 /h/-系 口蓋音化 規則은 語頭的 位置에서 적용되며, 漢字語의 경우에는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단히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1) /h/-系 口蓋音化 規則

$h \rightarrow \text{ç} / \# \text{ — } \left[\begin{array}{l} - \text{ cons} \\ + \text{ high} \\ - \text{ back} \end{array} \right]$

(조건 : 漢字語의 경우 이 規則의 적용은 수의적이다)

IV. 口蓋音化와 관련된 音韻規則

이 장에서는 口蓋音化와 밀접하게 관련된 /j/-削除規則과 이에 관련된 母音의 變化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j/가 口蓋音化의 同化主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난 후의 변화 양상을 보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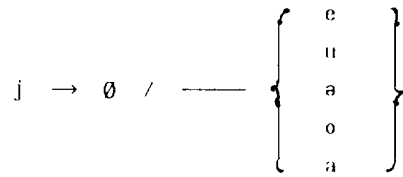
濟州島地域語에서 口蓋音化의 同化主 /j/는 口蓋音化 規則의 適用 후에 削除되는 양상을 보인다. 공시적으로 /l/-系 口蓋音化 規則은 形態素 境界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j/-削除規則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k/-系 口蓋音化와 /h/-系 口蓋音化의 자료만이 논의의 대상이 된다.

- (42) 가 . /je/ → /e/
 갯돈 /kjetton/ → [tʃet'on]
 나 . /ja/ → /a/
 향(香) /hjaŋ/ → [saŋ]
 향교 /hjaŋkjo/ → [saŋgjo]
 다 . /jə/ → /a/
 경우 /kjəŋu/ → [tʃəŋu]
 겨울 /kjalil/ → [tʃəril ~ tʃəri]
 형 /hjaŋ/ → [saŋ]
 형제 /hjaŋtʃe/ → [saŋdʒe]
 라 . /jo/ → /o/
 효자 /hjoʃa/ → [soʒa ~ soʒe]
 효도 /hjoto/ → [sodo]
 효과 /hjokwa/ → [sok'wa ~ sok'a]
 교장 /kjotʃaŋ/ → [tʃodʒaŋ]
 교사 /kjosa/ → [tʃosa]
 마 . /ju/ → /u/

흥년 /hjuŋnjan/ → [suŋnjan]
 굴 /kju/ → [tʃu]
 규칙 /kjutʃhik/ → [tʃutʃhikʷ]

이 자료들을 보면 일정하게 口蓋音化 規則의 適用 후에 口蓋音化의 同化主로서 기능을 수행한 /j/가 일괄적으로 削除되고 있어서 /j/-削除規則의 설정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규칙은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43) /j/-削除規則



그러나, 濟州島地域語에서 /j/-削除規則은 순서적으로 口蓋音化 規則에 後行하는 단순한 規則인 것처럼 보이지만, /k/-系 口蓋音化와 /h/-系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을 거친 다음과 같은 예들은 /j/-削除規則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44) 겨우 /kjau/ → [tʃeu]
 혀 /hja/ → [se]

/k/-系 口蓋音化와 /h/-系 口蓋音化 規則을 적용한 후에 /j/와 관련된 音韻規則이 /j/-削除規則 뿐이라면 (44)에 제시된 자료들은 /j/만 削除된 표면형 '[sa]'와 '[tʃau]'를 도출하여야 하지만 이들은 母音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포괄적인 音韻規則의 記述을 위해 또 다른 音韻規則이 개입되고 있음을 포착하여야 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口蓋音化와 관련되지 않은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滑音과 母音의 연쇄에서 (44)의 예와 같은 '/ja/ → /e/'의 변화가 濟州島地域語의 많은 자료들에서 발견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 (45) 명태 /mjəŋtʰɛ/ → [mɛŋtʰɛ]
 벼락 /pjaɾak/ → [pɛɾakʔ]
 벼룩 /pjaɾuk/ → [pɛɾukʔ ~ pɛɾokʔ]
 병풍 /pjaŋpʰuŋ/ → [pɛŋpʰuŋ]
 병작(竝作) /pjaŋtʃak/ → [pɛŋdzakʔ]
 변소 /pjaŋso/ → [pɛŋso]
 별(星) /pjaɪ/ → [pɛɪ]
 별 /pjaɪtʰ/ → [pɛtʰ]
 별명 /pjaɪmjəŋ/ → [pɛɪmɛŋ ~ pɛɪmjəŋ]
 차별 /tʃʰapjaɪ/ → [tʃʰɛpɛɪ]
 새벽/sɛpjaɪ/ → [sɛpɛkʔ]
 뺨 /p'ja/ → [p'e]
 공평 /kɔŋpʰjaŋ/ → [kɔŋpʰɛŋ]
 편안 /pʰjanan/ → [pʰɛnan]
 평상(平床) /pʰjəŋsəŋ/ → [pʰɛŋsəŋ]
 편지 /pʰjəntʃi/ → [pʰɛndʒi]
 며느리 /mjənili/ → [mɛnuri ~ mɛniri]
 면도 /mjənto/ → [mɛnto]
 면장(面長) /mjəntʃəŋ/ → [mɛndʒəŋ]
 명절 /mjəntʃəl / → [mɛŋdzəl ~ mɛŋdzil]
 멀치 /mjəntʃhi/ → [mɛltʃhi ~ mɛritʃhi]
 명심 /mjəŋsim/ → [mɛŋsim]
 명주 /mjəntʃu/ → [mɛŋdzu]
 송편 /sɔŋpʰjan/ → [sɔŋpʰɛŋ]

이 자료들은 /k/-系 口蓋音化와 /h/-系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된 후의 滑音, 母音의 變化 양상과 동일하게 '/ja/ → /e/'의 變化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44)와 같은 자료에 (43)과 같은 /j/-削除規則 이외의 또 다른 音韻規則이 개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口蓋音化와 /j/-削除規則 사이에 개입된 音韻規則을 발견해 내기 위해 濟州島地域語에서 滑音과 母音의 연쇄에서 母音의 변화를 관찰하면, ‘/jo/ → /e/’, ‘/ja/ → /i/’의 변화도 발견된다.

(46) ㄱ. /jo/ → /e/

표 /phjo/ → [phe]

표적 /phjotʃak/ → [phedzakʰ]

표지 /phjotʃi/ → [phedzi]

ㄴ. /ja/ → /i/

병신 /pjəŋsin/ → [piŋsin]

병아리 /pjəŋali/ → [piŋari ~ pieŋi]

병원 /pjəŋwan/ → [piŋwan]

앞에서 제시한 (42), (44), (46)의 자료들을 묶어 보면 濟州島地域語에서 滑音 /j/와 관련된 母音의 變化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유형으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7) ㄱ. /j/-削除

ㄴ. /ja/ → /e/

ㄷ. /jo/ → /e/

ㄹ. /ja/ → /i/

위에서 /j/-削除는 滑音, 母音의 음운 연쇄에서 滑音 하나를 삭제한 것이지만, ‘/jo/ → /e/’, ‘/ja/ → /e/’, ‘/ja/ → /i/’의 경우는 母音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운론적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단순히 二重母音의 單母音化로 설명한다면 音韻의 削除와 變化를 하나의 規則으로 동시

에 설명을 해야 하는 記述上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예들을 規則順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j/-削除規則과 관련시켜 본다면 (47.ㄴ, ㄷ, ㄹ)의 예들은 '/ja/ → /je/', '/jo/ → /je/', '/ja/ → /ji/'의 단계를 거친 후에 /j/-削除規則이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 滑音과 母音의 연쇄가 가지는 辨別的 資質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48) ㄱ.	/j/	/a/	/e/
	$\left[\begin{array}{l} + \text{ high} \\ - \text{ low} \\ - \text{ back} \\ - \text{ round}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l} - \text{ high} \\ - \text{ low} \\ + \text{ back} \\ - \text{ round}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l} - \text{ high} \\ - \text{ low} \\ - \text{ back} \\ - \text{ round} \end{array} \right]$
ㄴ.	/j/	/o/	/e/
	$\left[\begin{array}{l} + \text{ high} \\ - \text{ low} \\ - \text{ back} \\ - \text{ round}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l} - \text{ high} \\ - \text{ low} \\ + \text{ back} \\ + \text{ round}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l} - \text{ high} \\ - \text{ low} \\ - \text{ back} \\ - \text{ round} \end{array} \right]$
ㄷ.	/j/	/a/	/i/
	$\left[\begin{array}{l} + \text{ high} \\ - \text{ low} \\ - \text{ back} \\ - \text{ round}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l} - \text{ high} \\ - \text{ low} \\ + \text{ back} \\ - \text{ round}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l} + \text{ high} \\ - \text{ low} \\ - \text{ back} \\ - \text{ round} \end{array} \right]$

(48.ㄱ, ㄴ, ㄷ)에서 제시한 각 分節音의 辨別的 資質(distinctive feature)에 의해 /j/와 /a, e/, /j/와 /o, e/, /j/와 /a, i/의 資質을 비교해 보면, /ja/의 연쇄에서는 /j/와 /a/가 [high]와 [back]資質이 相異하지만 /je/의 연쇄에서 /j/와 /e/는 [high]資質에서만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jo/ 연쇄에서는 /j/와 /o/가 '[high], [back], [round]'資質이 相異하고 /je/의 연쇄에서 /

j/와 /e/는 [high] 資質에서만 다르다. 마지막으로, /ja/의 연쇄에서는 /j/와 /a/가 [high]와 [back] 資質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ji/의 연쇄에서는 /j/와 /i/의 비교할 수 있는 資質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두 分節音의 연쇄가 더 많은 수의 資質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들의 연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資質을 공유하는 연쇄보다 조음이 더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ja/연쇄보다는 /je/가, /jo/연쇄보다는 /je/가, /ja/연쇄보다는 /ji/연쇄가 상대적으로 조음하기 편리한 연쇄가 된다. 즉, 滑音과 母音의 연쇄에서 滑音에 이어지는 母音 /a/가 /e/로, /o/가 /e/로, /a/가 /i/로 滑音의 資質에 가까워지려는 變化가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規則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된다.

(49) ㄱ. '/a, o/ → /e/' 規則

$$\left\{ \begin{array}{c} a \\ o \end{array} \right\} \rightarrow e / j \text{ ———}$$

ㄴ. '/a/ → /i/' 規則

$$a \rightarrow i / j \text{ ———}$$

위에 제시한 母音의 滑音 /j/에의 同化規則이 적용된 후에 前述한 /j/-削除規則이 적용되는 것으로 規則의 적용 순서를 정하면, 앞에서 제시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바른 표면형을 얻게 된다.

(50) ㄱ. /sɔŋpʰjən/

‘송편’

sɔŋpʰjən

'/a, o/ → /e/' 規則

sɔŋpʰen

/j/-削除規則

[sɔŋpʰen]

표면형

ㄴ. /pʰjotʃək/

‘표적’

phjedʒak	‘/a, o/ → /e/’ 規則
phedʒak	/j/-削除規則
[phedʒakʔ]	표면형

ㄷ . /pjaŋsin/	
‘병신’	
pjɨŋsin	‘/a/ → /i/’ 規則
piŋsin	/j/-削除規則
[piŋsin]	표면형

이와 같은 音韻論的 過程을 /j/-削除規則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44)의 /k/-系, /h/-系 口蓋音化 자료와 관련시키면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51) ㄱ . /kjau/	
‘겨우’	
ʃjau	/k/-系 口蓋音化 規則
ʃjeu	‘/a, o/ → /e/’ 規則
ʃeu	/j/-削除規則
[ʃeu]	표면형
ㄴ . /hja/	
‘허’	
ɕja	/h/-系 口蓋音化 規則
ɕje	‘/a, o/ → /e/’ 規則
ɕe	/j/-削除規則
se	‘ɕ → s’ 規則
[se]	표면형

위에서 /h/-系 口蓋音化 規則과 관련된 ‘허 /hja/ → [se]’의 음운론적 과정 중 ‘ɕ → s’ 規則은 口蓋音化 規則의 同化主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j/의 削除로

'[ɾ]'가 非口蓋環境에 놓이게 되어 口蓋音으로 남아있을 명분이 사라짐으로써 '/s/'로 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43)에서 설정한 /j/-削除規則은 '/a, o/ → /e/', '/a/ → /i/'規則의 설정으로 '/i/' 앞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52)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52) /j/-削除規則

$$j \rightarrow \emptyset / \left. \begin{array}{c} i \\ e \\ u \\ a \\ o \\ a \end{array} \right\}$$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간단히 요약하면 /k/-系 口蓋音化와 /h/-系 口蓋音化規則의 적용 후에는 일괄적으로 /j/가 削除되고 있어서 /j/-削除規則을 설정하였고, /k/-系 口蓋音化, /h/-系 口蓋音化와 /j/-削除規則 사이에는 母音이 滑音의 資質에 同化되는 '/a, o/ → /e/', '/a/ → /i/'規則을 설정하였다.

V. 規則變化의 方向에 대한 展望

하나의 音韻規則을 記述함에 있어서 音韻規則이 變化의 흐름에 노출되어 있는 同音異義語의 公時代가 그 變化의 方向을 거를 합리적으로 예측해 보는 것은 대상 地域語의 公時代가 그 變化의 方向을 거의 정확하게 암시할 경우 의미있는 작업이 된다.

音韻規則의 變化 유형은 그 결과에 따라 어떤 音韻規則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規則喪失), 없던 音韻規則이 새로 생기는 경우(規則添加), 어느 두(혹은 그 이상의) 규칙이 그 적용 순서를 바꾸는 경우(規則再配列), 어느 두 규칙이 그 모습, 즉 形式(form)을 바꾸는 경우(規則單純化) 등 네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다.⁴⁹⁾ 이 장에서는 濟州島地域語의 /k/-系, /h/-系 口蓋音化 規則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音韻規則의 變化 유형 중 첫번째 유형인 '어떤 音韻規則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規則喪失)'에 해당할 것임을 展望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받기 위해, 우선 濟州島地域語에서 /k/-系 口蓋音化와 /h/-系 口蓋音化 規則은 그 적용의 결과로 同音異義語(homonym)를 生成해내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本源的인 同音異義語(homonym)는 아니지만 現象的인 同音異義語(homonym)를 산출하게 된다.⁵⁰⁾

- (53) 기름(油) /kilim/ → [ʈʂirim] : 지름(直徑) /ʈʂilim/ → [ʈʂirim]
길(道) /kil/ → [ʈʂil] : 질(腔) /ʈʂil/ → [ʈʂil]
향(香) /hjaŋ/ → [saŋ] : 상(床) /saŋ/ → [saŋ]

49) 李基文·金嶺宇 李相億, 「國語音韻論」(學研社, 1987), p. 191.

50) 本源的 同音語와 現象的 同音語에 대해서는 金宗澤·千時權(1982:178-180)을 참조할 것.

효자(孝子) /hjoɫʃa/ → [sodʒa] : 소자(小子) /soɫʃa/ → [sodʒa]
효심(孝心) /hjosim/ → [soɕim] : 소심(小心) /sosim/ → [soɕim]

이 예들을 보면 /k/-系 ㄱ蓋音化와 /h/-系 ㅎ蓋音化 規則의 적용은 同音異義語(homonym)를 生成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音韻變化, 意味의 變化, 外國어의 영향 등으로 同音異義語(homonym)의 생성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일단 生成된 同音異義語(homonym)는 의미의 혼란으로 그 충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충돌되는 同音異義語(homonym)간에는 여러가지로 그 충돌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⁵¹⁾

이러한 同音異義語(homonym)의 생성이 음운론적으로 논의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意味對立을 유지하려는 쪽으로 音韻變化와 規則의 變化가 진행된다는 데에 있다. 즉, 규칙 적용 이전에는 意味對立을 유지하고 있던 어휘들이 규칙 적용의 결과 意味對立과 의사소통에 지장을 준다면, 이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k/-系 ㄱ蓋音化와 /h/-系 ㅎ蓋音化 規則은 濟州島地域語의 音韻規則의 목록에서 사라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同音異義語의 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이 꼭 어느 音韻規則을 規則의 체계에서 削除시킴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교육의 보급, 방송 매체의 영향, 교통수단의 발달 등의 요인들이 /k/-系 ㄱ蓋音化와 /h/-系 ㅎ蓋音化 規則을 音韻規則의 體系 속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언어가 濟州島地域語에 대한 改新派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있어서 이 두 規則의 喪失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그 根據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濟州島地域語에서 연령층에 따라 ㄱ蓋音化 規則의 적용 양상을 상당히 다르게 만드는 결과를

51) 崔泰榮, "同音語 衝突 原理考", 『국어국문학』 제58-60호 합병호, 1972, p.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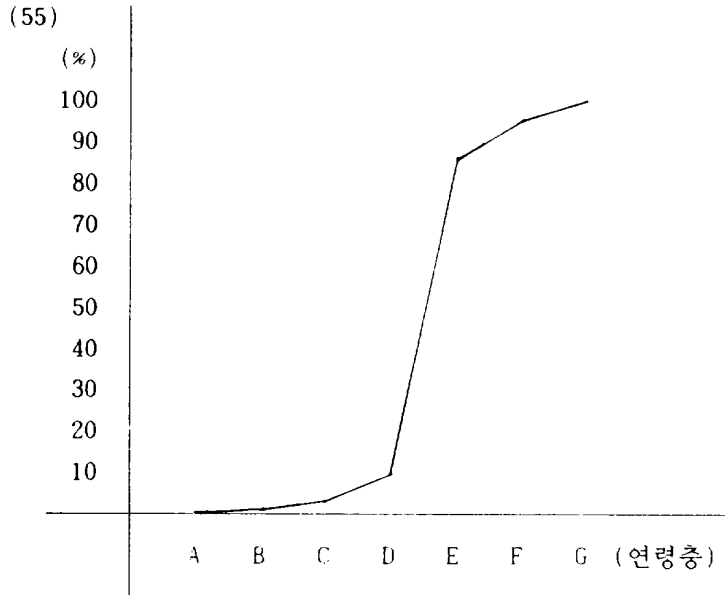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밝혀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업을 가진 提報者들을 대상으로 /k/-系 口蓋音化와 /h/-系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54)

연령층 \ 직업	학 생	상 업	공무원	회사원	농 업	무 직
15세 미만	30					
15-24세	25	3		2		
25-34세	10	9	7	3		1
35-44세		5	18	4	3	
45-54세		8	15	2	4	1
55-64세		9	8	2	5	6
65세 이상					8	22

이러한 提報者들에게서 얻은 濟州島地域語에서의 연령층에 따른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가로축에 15세 미만의 연령층을 A, 15-24세 사이의 연령층을 B, 25-34세 사이의 연령층을 C, 35-44세 사이의 연령층을 D, 45-54세 사이의 연령층을 E, 55-64세 사이의 연령층을 F, 65세 이상의 연령층을 G로 놓고 세로축에 이들의 /k/-系 口蓋音化와 /h/-系 口蓋音化 規則의 적용 실태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⁵²⁾

52)이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 표(54)와 같은 직업적 분포를 가진, 濟州島가 고향이면서 제주시에 거주하는 제보자를 각 연령층별로 30명씩 210명을 선정하여



이 그래프를 보면 낮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k/-系 ㄱ蓋音化와 /h/-系 ㄱ蓋音化 規則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前述한 바와 같이 교육, 방송 매체, 교통수단의 발달 등의 영향으로 생기는 것이다.⁵³⁾ 이

통신조사에 의해 /k/-系 ㄱ蓋音化의 경우 '길 /kil/ → [ʃil], 끼다 /k'ida/ → [ʃ'ida]', /h/-系 ㄱ蓋音化의 경우 '형 /hjaŋ/ → [saŋ], 혀 /hja/ → [se]'의 경우에 한해 ㄱ蓋音化 規則의 적용 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의 처리는 이 규칙이 개인적으로도 적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보자의 수에 조사 대상 어휘수를 곱한 840가지의 경우에 대해 규칙 적용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였는데 15세 미만의 연령층에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고, 15-24세의 연령층에서는 1% 정도, 25-34세의 연령층에서는 3% 정도, 35-44세의 연령층에서는 10% 정도, 45-54세의 연령층에서는 85% 정도, 55-64세의 연령층에서는 95% 정도, 65세이상의 연령층에서는 99% 정도의 규칙 보유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3) 박경래(1989:309-311)는 社會的인 要因(social factors)들을 고려한 방언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方言分化의 주요 원인으로 교육, 주민들의 출생지 비율, 교통, 직업 등을 들고 있다.

規則들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연령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이 지역 언어의 전수 세대가 될 시기에는 濟州島地域語에서 /k/-系 口蓋音化 規則과 /h/-系 口蓋音化 規則은 세대의 변화에 따라 規則喪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음으로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되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적용이 안되는 不透明形들이 많이 생긴다는 音韻論的 根據를 들 수 있다. 적어도 이 規則들이 완전히 透明하려면 /k/-系 口蓋音化와 /h/-系 口蓋音化 規則이 適用되는 '#-i(j)'의 환경에서는 /k, kh, k'/나 /h/가 출현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前述한 바대로 역사적으로 /ij/에서 生成된 /i/앞에서는 /k/-系 口蓋音化 規則이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데에서도 오는 것이며, 연령층간의 口蓋音化 規則의 보유 실태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이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濟州島地域語의 語頭에서 /i/나 /j/ 앞에서도 口蓋音化 規則이 적용되지 않는 不透明形들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不透明形은 언어습득자에게 주저와 혼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不透明性を 줄이고 透明性を 늘리는 방향으로 規則의 變化나 音韻의 變化가 진행된다는 음운론적인 동기⁵⁴⁾에서도 /k/-系 口蓋音化 規則과 /h/-系 口蓋音化 規則은 濟州島地域語의 音韻規則의 목록에서 제외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이런 不透明形들을 없애기 위해 이 規則들을 완벽하게 의무적으로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規則의 變化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위에서 제시한 同音異義語(homonym)의 생성과 관련된 의미대립의 유지, 교육, 방송 매체, 교통수단의 발달등의 요인들이 이 規則들을 의무적으로 적용시키는 방향으로는 規則의 變化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記述한 바를 간단히 요약하면, 濟州島地域語에서의 /k/-系 口蓋音化 規則과 /h/-系 口蓋音化 規則은 同音異義語의 生成과 관련된 意味對立의 유

54) 李基文·金鎮宇·李相億, 前掲書, p. 209.

지, 연령층간의 규칙보유 실태의 차이. 音韻論的 不透明性의 제거라는 면에서 음운규칙의 목록에서 사라지게 될 것임을 예측하였다.

VI. 結 論

音韻規則의 記述은 관찰적 충족성(observational adequacy), 기술적 충족성(descriptive adequacy), 설명적 충족성(explanatory adequacy)을 전제로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면서, 濟州島地域語의 口蓋音化 規則을 /t/-系 口蓋音化, /k/-系 口蓋音化, /h/-系 口蓋音化 등에 한정해서 논의하고 規則化했다. 앞에서 논의하여 얻은 결론을 항목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系 口蓋音化 規則은 形態素 境界에서 적용되어 다른 地域語와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으며, 單語境界에서 口蓋音化를 저해하는 방식이 濟州島地域語에서는 /h/-添加規則과 /t/-添加規則의 적용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둘째, /k/-系 口蓋音化와 /h/-系 口蓋音化 規則은 固有語와 漢字語의 구분없이 語頭의 위치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는데, 漢字語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수의적이었다. 또한, 동시에 적용되는 '/ij/ → /i/' 規則의 적용에 의해 생성된 /i/는 /k/-系 口蓋音化 規則의 同化主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음을 밝혔다.

셋째, 口蓋音化의 同化主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후의 /j/의 변화양상을 고찰하여 /j/-削除規則을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滑音과 母音의 연쇄에서 母音이 滑音의 資質에 同化되는 '/a, o/ → /e/', '/a/ → /i/' 規則을 설정하였는데 이 規則들이 /j/-削除規則보다 순서적으로 먼저 적용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口蓋音化 規則의 變化에 대한 展望을 하면서 濟州島地域語의 /k/-系, /h/-系 口蓋音化 規則은 同音異義語(homonym)의 生成과 관련된 意味對立의 유지, 교육, 방송 매체, 교통수단의 발달 등의 영향에 의한 연령층간의 규

척보유 상태의 차이, 音韻論的 不透明性의 제거라는 면에서 音韻規則의 목록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

序論에서도 밝혔듯이 音韻論 研究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音韻規則의 體系를 수립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 연구는 濟州島地域語의 音韻規則 體系의 일부를 논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濟州島地域語의 音韻論 研究가 더욱 활발해져서 본고에서 記述한 口蓋音化 規則이 濟州島地域語의 音韻規則의 體系 속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

參 考 文 獻

* 자료집, 사진 *

朴用厚, 「濟州方言研究(資料篇)」,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88.

劉昌惇,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79.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 (第1輯 資料篇)」, 精研社, 1962.

* 논문 *

姜榮峯, “濟州島 方言의 後置詞에 關한 研究”, 濟州大學 教育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81.

고광모, “ㄴ 첨가와 사이시옷에 대한 연구”, 「언어학」제14호, 1992.

고동호, “제주방언의 구개음화와 이중모음의 변화”, 「언어학」제13호, 1991.

郭忠求, “體言語幹末 舌端子音의 摩擦音化에 對하여”, 「국어국문학」제91호, 1984.

奇世官, “國語 單語形成에서의 /ㄹ/脫落과 /ㄴ/添加에 대한 音韻論的 研究”, 圓
光大學校 박사학위 논문, 1990.

金光雄, “濟州地域語의 口蓋音化에 대한 一研究”, 제주대「논문집」제20집, 1985.

———, “濟州島 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세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8.

金政佑, “國語音韻論의 境界問題에 關한 研究”, 「國語研究」第59號, 1984.

金周弼, “口蓋音化에 대한 通時論的 研究”, 「國語研究」第68號, 1988.

박경래, “槐山方言의 音韻에 대한 世代別 研究”, 「國語研究」第57號, 1984.

———, “槐山地域語의 社會方言學的 考察 -二重母音의 單母音化를 中心으로-”,
「국어국문학」제101호, 1989.

- 朴種熙. "音韻變化의 制約性 - ㅁ 口蓋音化를 中心으로 -". 圓光大「論文集」第15輯, 1981.
- 성희제. "국어 구개음화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 송상조. "제주도 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 오정란. "구개음화의 음운론적 위상". 「국어국문학」제103호, 1990.
- 李明奎. "口蓋音化에 對한 文獻的 考察". 「國語研究」第31號, 1974.
- . "口蓋音化".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研究會編 「國語研究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1990.
- 이병건. "현대 한국어의 구개음화 규칙". 「언어」제2권, 제1호, 1977.
- 李丞宰. "求禮地域語의 音韻體系". 「國語研究」第45號, 1980.
- . "형태소 경계의 음운론적 기능에 대하여 -구례지역어의 경우-". 白影 鄭炳昱先生 還甲紀念論叢 I 「國語學 研究」. 新丘文化社, 1983.
- 이승환. "구개음화 현상에 대한 생성 음운 규칙". 「한글」제152호, 1973.
- 鄭承喆. "濟州島方言의 母音體系와 그에 관련된 音韻現象". 「國語研究」第84號, 1988.
- 崔明玉. "慶南 三千浦 方言의 音韻論的 研究". 「國語研究」第32號, 1974.
- 崔泰榮. "同音語 衝突 原理考". 「국어국문학」제58-60호 합병호, 1972.
- 韓載賢. "國語 口蓋音化의 再檢討". 全北大「어학」第2輯, 1975.
- 玄平孝. "濟州島方言의 單母音設定". 「韓國言語文學」第2輯, 1964.
- 洪誠海. "濟州 地域語의 子音音韻現象에 關한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7.
- 洪允杓. "口蓋音化에 대한 歷史的 研究". 「진단학보」60, 1985.

* 저서, 출판논문 *

Kim Soo-Gon. 「PALATALIZATION IN KOREAN」. 탑출판사, 1976.

- Kim Young-Key.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PAGODA PRESS, 1975.
- 金亨奎. 「韓國方言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6.
- 李基文.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1986.
- . 「國語音韻史研究」. 塔出版社, 1987.
- 李基文·金鎮宇·李相億. 「國語音韻論」. 學研社, 1987.
- 이병건. 「현대 한국어의 생성음운론」. 일지사, 1985.
- 李崇寧.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塔出版社, 1978.
- 崔明玉. 「月城地域語의 音韻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2.
- 崔銓承. 「19세기 후기 全羅方言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翰信文化社, 1986.
- 崔鶴根. 「國語方言研究」. 明文堂, 1991.
- 허웅. 「國語音韻學」. 正音社, 1983.
- . 「국어음운학 -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正音社, 1985.
- Chomsky, N. and Halle, M.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and Row, 1968.
- Hyman, Larry M.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5.

<Summary>

A study on the palatalization of Cheju dialect

O, Sŭng-Hun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Kwang-Woong

We must describe phonological rules in consideration of observational adequacy, descriptive adequacy, and explanatory adequacy. Bearing this fact in mind, I discussed palatalization rule of Cheju dialect and examined the restrictions in applying the rule. The conclusions should be itemized as follows.

The first, the applying environment of the /t/-palatalization rule do not differ from that of other dialects in Korea. However, in addition to /n/-epenthesis rule discovered in the former study, I found /l/-epenthesis rule which blocks the application of /t/-palatalization rule in the word boundary of Cheju dialect.

The second, the /k/-palatalization rule and the /h/-palatalization rul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3.

are applied to the proper word and the Sino-Korean word in initial position without differentiation. By the way, these rules are applied optionally to the Sino-Korean word.

The third, with relation to palatalization rule, I investigated the aspects of change of /j/ after the application of palatalization rule by establishing /j/-deletion rule and '/a, o/ → /e/, /a/ → /i/' rule. The '/a, o/ → /e/' and '/a/ → /i/' rule is applied before the application of /j/-deletion rule.

The last, I predicted that the palatalization rule should disappear in the list of phonological rules of Cheju dialect by showing three evidences, such as preservation of semantic contrast, differences of the rule application between generations, and phonological opaqueness.

Though I made some conclusions about palatalization rule of Cheju dialect, I merely discussed a part of the system of the phonological rules. I want palatalization rule to be discussed in the total system of the phonological rules of Cheju dialect with the improvement of the phonological study on Cheju dialect.